

02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첨단업종 확대개편으로 입지규제 완화

 추진부서 경기도 수원시 기업지원과 박은준 031-228-2286

개선배경



- 첨단업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 수도권,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공장 신·증설시 입지규제가 완화 적용 됨
 -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은 제한되나 첨단업종의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허용
 - 「국토계획법」 상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장의 신·증설은 제한되나 첨단업종의 경우 허용
-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 신산업을 반영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17.1.13) 되었으나 「산업집적법」에 미반영 되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드론, 3D프린터 등 첨단기술제품들이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도권 등 공장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 유치 애로 발생

개선내용



개선전

- 첨단업종 범위에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07.12)
-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업종 미반영



개선후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17.1) 적용
- 최근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한 첨단업종(16개) 신규지정

- 2018.04.03. : 경기도 찾아가는 규제혁파 순회간담회 핵심안건 논의
- 2018.04.26. :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자료(2018-2호) 제출
- 2018.05.23. :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 2018.05.26. : 규제개혁 법령개정 건의
- 2018.08.13. :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의견 회신(부처의견 : 수용)
- 2018.08.22. :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제2018-435호)
- 2018.08.27. :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토론회 선정
- 2018.12.18. : 법령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2호, 2018.12.18. 시행)

개선효과



- ICT산업 등 첨단업종 산업의 입지규제 완화
- 수도권 녹지지역 등에서의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로 기업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간담회



국무조정실 민관 합동규제추진단 활동보고서

첨단업종 확대개편으로 기업입지 규제 완화



■ 작성자 경기도 수원시 기업지원과 박은준 031-228-3284

안녕하세요.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업무 담당 박은준입니다. 제가 제출한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위한 첨단업종 확대건의가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 2019년 5월 31일에 개최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입선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본선 경연대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했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8년 1월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미래신산업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신산업 융합기술과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규제는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지향형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현장 실무자의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여러 분야를 찾아보았고, 첨단업종을 지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17년도에 제10차 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법 상에서는 아직도 07년도에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9차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적용하면 최근 새롭게 등장한 3D프린팅이나 무인(드론)항공기산업 등은 첨단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융합된 신제품들이 첨단업종으로 지정 받지 못해 공장입지 및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1982년도에 제정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밀 억제권역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 불가로 기업 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일 경우 권역에 상관없이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및 행안부의 규제혁신 핵심안건으로 제출, 2018년5월 국무조정실 및 산자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 하였으며 2018년 12월 법령 개정으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산업분류의 현행화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태양전지 LED, 3D 프린팅,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무인항공기 등 첨단성이 높은 16개 업종의 신규 선정입니다.

이 개정 사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 적용 가능한 것으로, 녹지면적 비율은 전국 약 62%, 경기도 약 21%, 수원 약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토지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녹지지역 내 공장입지 확대와 신산업 창업 촉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이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을 창업하고 신규투자를 유치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